

광주 보이스피싱 73.9%는 ‘대면편취’... “수금책 가담도 엄벌”

“대부분 보이스피싱 알면서 가담...영장신청 적극 검토”

정보 유출·착신 전환 기능 탑재 악성앱 설치 주의 강조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73.9%가 현금 수거책을 활용한 이른바 ‘대면 편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242건 중

179건은 ‘대면 편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73.96%이다.

대면 편취형은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일당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등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

명했다.

구인 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고액 수당을 빌미로 ‘채권 추심 업무다. 돈을 받아 송금하라’ 등 지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금 수거책 A씨는 지난 7월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2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 ‘채권 추심 업체에 채용된 줄 알았다’고 주

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하다 조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또 이 달 검거된 현금 수거책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가로챈 뒤 일당에게 송금하지 않고 달아났다. 검거·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모바일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URL, ZIP 파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클릭 또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주소록·최근 통신 내역 등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며, 강제로 수신·발신기능이 활성화된다.

악성 앱 설치만으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착신 전환 연결되는 등 보다 손쉽게 사기 행각에 속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또 붙잡힌 현금 수거책은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비문 기반 반려견 인식기술 설명 듣는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AI TECH+ 박람회를 찾아 비문 기반 반려견 인식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33개월째 지속

■ 통계청, '2022년 7월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2만441명...1년 전보다 8.6%↓
사망자 2만6030명...동월 기준 최고치

올해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모두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33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 대비 1923명(-8.6%)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통상 인구동향 통계는 계절 요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7명으로 0.4명 감소했다.

지난 7월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지난해보다 298명(1.2%) 늘었다. 이 수치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혼인 건수는 1만4947건으로 전년 대비 792건(-5.0%)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771건(-9.3%) 줄었다. 이혼의 경우 1996년 7월(7126건)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다. 혼인 자체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도 줄어든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월간 동향이다 보니 매달 비슷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출생아 수는 80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7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이슬 기자

5·18단체 “행불자 신고 대상자 242명 전수 조사해야”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과거 보상 신청 당시 집계된 5·18 행방불명자 242명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5·18부상자회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유골) DNA 감식 결과를 비롯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차 보상금 지급 조사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한 242명에 대한 DNA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단체 차원에서도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족들에 대한 신규 접수를 받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받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골 조사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행방불

명자들이 5·18 참여 유공자로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8차 5·18 배상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펴낼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까지인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2022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10.8. (토) ~ 10.16. (일)

장성 황룡강 일원

3년의 기다림... 다시 시작된 설렘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